



지면서 한전의 영업손익이 14조 3천억 원 적자로 곤두박질 친 상황이다.

|            | 한전<br>영업이익<br>(조원) | 국제유가<br>(\$/Bbl) | LNG 가격<br>(\$/MMtu) | SMP<br>가격<br>(원/kWh) | 소매<br>전기요금<br>(원/kWh) | 원가<br>회수율<br>(%) |
|------------|--------------------|------------------|---------------------|----------------------|-----------------------|------------------|
| 2020       | 4.09               | 42.3             | 4.2                 | 68.87                | 109.80                | 101.3            |
| 2022 (1~6) | -14.3              | 102.2            | 29.0                | 169.9                | 110.40                | -                |

<출처: 한국전력공사 제출자료>

한전 적자 여부는 시작도 하지 않은 탈원전 때문이 아니라 국제 에너지가격 변동에도 불구하고 연료비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는 왜곡된 전기요금 체계에 기인한다.

고유가는 한동안 지속될 것이고, 올겨울 가스의 공급과 가격 이중고에 세계 에너지 시장이 위기에 빠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유럽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LNG 가격 폭등으로 큰 타격을 입었다. 유럽은 RePower EU 정책을 펼치면서 에너지전환을 가속하고 있다. 2030년까지 전체 에너지 소비 중 재생에너지 비중 45% 달성하고(재생e 1,236GW 설치), 2030년까지 신규 태양광(592GW) 및 풍력(510GW) 건설하겠다고 한다.

미국 역시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제정해서 그린산업을 적극적으로 부양하겠다고 나섰다. 태양광 설비 제조 시 보조금 지급, 설비업체들에게 세액공제도 지원, 주거용 태양광은 태양광을 설치해서 절감한 에너지의 양에 따라서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풍력 산업에는 생산 세액 공제를 2032년까지 연장하고, 주요 부품 생산업체들에게 생산 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미국에서 풍력 발전 수요가 2배까지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양이원영 의원은 “한전적자의 주 원인은 화석연료비 폭등 때문”이라며 “전 세계적인 에너지 위기로 주요국들은 에너지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다. 재생에너지는 연료가 국내의 햇빛과 바람이라, 에너지위기 상황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국산에너지이다. 국내에서 발전되는 재생에너지 44TWh는 가스 발전 약 4조 원을 대체할 수 있으므로 재생에너지 확대에 화석연료를 대체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은 독일보다 일조량이 30% 높고, 우리나라의 태양광은 기술적 잠재량이 973GW, 육상풍력과 해상풍력이 각각 352GW, 387GW이나 된다. 햇빛과 바람자원이 매우 풍부한 국산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